

# 군산지부

하나의 민족, 국가가 장구한 세월을 이어 오기까지는 역사의 부침(浮沈)이 있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국가의 성쇠가 이렇진대 그속에 속한 도시는 역사라는 큰 물줄기의 흐름에 따라 번영과 정체(正體)의 길을 걷기도 하는 등 부침의 차이가 크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라북도 군산시는 우리의 현대사 특히 일제 통치 기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도시의 명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항구와 호남의 평양지대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제가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지 위한 집결지로 또 일본군 주둔지로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수탈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해방 이후 타 지역에 비해 더딘 발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최근 21세기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두고 긴 정체의 옷을 벗고 개발 거점 지역으로, 교통 요지로 가장 발달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군산 지부(지부장 정석균)가 창립된 것은 1979년, 올해로 16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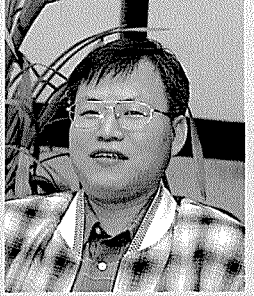
현재 25만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군산시 지부의 총 회원수는 53개 회원. 군산내 제과점 수가 65개라는 설명이고 보면 80% 이상이 회원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높은 회원 가입률에서 알 수 있듯 군산 지부는 친목과 단합의 토대가 탄탄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힘은 여타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산 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장 제도에서 나온다.

현재 군산 지부는 지역을 동서남북 4개로 구분한 지역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사정은 지역장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군산시는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다. 21세기 서해안 시대 개막에 발맞춰 해상 도시 건설과, 중국과의 교역 거점 도시로 육성될 계획이며 이근 장항과 통합돼 가칭 '군장' 광역시로 육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 지부는 자체 사무실 마련과 공동 구매 사업, 세미나 확대 등을 통해 도약을 위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 21세기 서해안 시대 개막을 준비한다

만큼 총 53 회원 중 각 지역장이 10개 업소를 맡아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지부 차원에서 매월 이사회인 월례회를 개최해 중요 사안을 의논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장 제도와 매달 월례회의라는 2개 축을 정점으로 위생이나 허가 사항 등을 이사회를 통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장을 통해 회원의 의견이나 현안 문제를 지부로 건의하는 형식을 빌어 조직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군산 지부는 회원 친목에도 힘쓰고 있다. 지부 차원에서 회원의 애경사에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 있으며, 매년 야유회와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명의 고문이 협회 일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 모두 단합해 알찬 지부를 꾸려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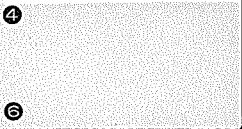
- 군산 지부는 53 회원으로
- 전체 분포 제과점의
- 80%가 옷도는 회원
- 가입률을 자랑한다.
- 또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 구분된 지역장 제도를
- 통해 업무 효율화와
- 친목을 강화하고 있으며
- 군산 대와 자매결연을
- 맺고 세미나를 실시
- 기술 향상에 힘쓰고 있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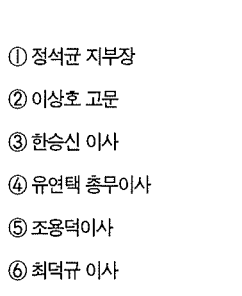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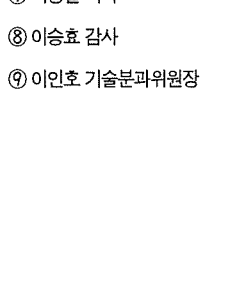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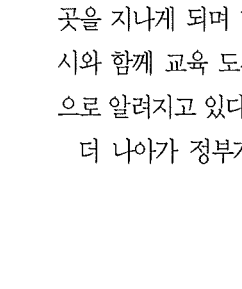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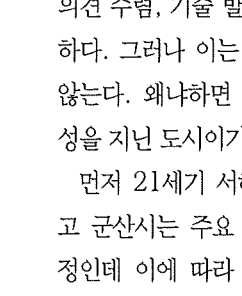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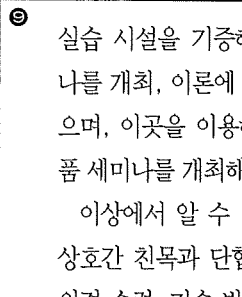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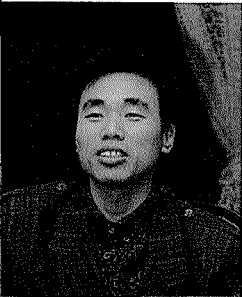
⑤



⑥



⑦



이밖에 군산 지부의 생동감은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 업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군산을 들어서면 받게 되는 첫인상은 한결같이 대부분의 제과점이 깨끗하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업소가 새롭게 단장된 인테리어로 보는 이로 하여금 활기찬 느낌을 받게 한다.

또 군산의 또 다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예상 외로 제품 수준이 높다는 점. 군산이 일제 시대에 번성한 도시이고 군부대가 주둔해 있던 도시여서 음식의 맛에 대한 수준이 높은 만큼 이런 영향으로 제과 품목 역시 일정 수준은 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제품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지부는 더 발전된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10년전부터 군산 대학 식품 영양학과와 자매 결연을 맺어 비품과 오븐 등 제과 실습 시설을 기증해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 이론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있으며, 이곳을 이용해 업소에서 원하는 제품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군산 지부의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기술 발전을 위한 활동은 활발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산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이기 때문이다.

먼저 21세기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군산시는 주요 개발도시로 육성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가 이곳을 지나게 되며 현재 건설 중인 해상도시와 함께 교육 도시로 육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인근 장항과 통합해

가칭 '군장' 광역시로 육성할 방침이어서 중국과의 교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도시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차적으로 지난 1월 1일 인근 옥구군이 통합됨으로써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따라서 군산시는 향후 발전에 대비해 이에 걸맞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의 1차적인 당면 과제로 지부 사무실 마련을 계획 중이다. 지금까지는 지부 사무실이 없어 보다 조직적이고 활성화된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 상반기 내 사무실을 마련해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어서 앞으로의 활동과 사무실 마련에 따른 군산 지부 회원의 단합된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 지부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각종 공동 구매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회원의 이익을 위해 힘쓰고 세미나 역시 다변화시켜 회원 업소의 제품 중 판매가 높은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해 기술 향상 및 판매 증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현재도 80% 선을 웃도는 회원 가입률을 더 끌어 올려 전 업소의 회원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 지부는 속이 꼭 찬 열매처럼 알찬 지부이다. 높은 회원 가입률과 지역장 제도를 통한 업무 효율화, 친목으로 탄탄한 지부를 이끌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부 사무실 마련과 기술 향상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세미나와 회원 이익을 위한 공동 구매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금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적인 노력 외에도 군산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 주요 도시로 육성될 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군산시 제과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군산 지부의 향후 활동이 자못 기대되고 있다. <글/박종선>

- ① 정석균 지부장
- ② 이상호 고문
- ③ 한승신 이사
- ④ 유엔택 총무이사
- ⑤ 조용덕이사
- ⑥ 최덕규 이사
- ⑦ 이종길 이사
- ⑧ 이승호 감사
- ⑨ 이인호 기술분과위원장